

국제법정계량기구 동향

계량계측과 공업연구관 나기형
02) 509-7410 nakh@ats.go.kr

1.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공산품 등에 대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측정단위의 통일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1875년 5월20일 미터조약이 체결되어 국제도량형국(BIPM)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상이한 여러 가지 국가규격으로 인하여 무역장벽을 없애기에는 불충분함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특히 계량기 검정 기준 등의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새롭고 독립적인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1937년 파리에서 제1차 국제법정계량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마침내 1955년 10월 12일 국제조약인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설립 조약이 체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OIML은 계량기의 구조, 사용방법, 검사방법, 허용오차 등 계량기의 사용에 있어서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법정계량제도나 계량기의 검정·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을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법정계량체계의 통일(Harmonization)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OIML 가입국가들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이들과 경쟁하여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기구 특히 국제법

정계량기구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며 국제화 시대에 자국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과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2. OIML의 법정계량 이념

OIML에서 정한 법정계량의 범주는 환경, 보건, 산업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의 총체로서 측정결과가 상호간에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나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량법에서는 상거래나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한정하고 있어, 추후에는 보건안전 및 환경계측분야에 대하여 법정계량의 제도권으로 포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OIML의 인증서 제도

OIML 인증서 제도는 1990년10월 제25차 국제법정계량회의(CIOML)의 승인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시

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임의제도로 계량기의 형식과 OIML의 권고규격과의 적합성 여부, 즉 계량적, 기술적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때 인증서를 발급(등록 및 사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형식인증 제도가 있으나, 주로 점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범위가 국내로 국한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OIML인증서의 발급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OIML인증서를 발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21개 국가 24기관으로 14개 품목에 대하여 903개 형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2002. 2 현재)하였다.

4. 국제기술기준[국제권고(IEC), 국제문서(ISO) 등의 개발]

1972년 브리넬 경도 표준화 블록의 점정 및 교정 등에 관한 국제권고의 개발을 시작으로 2002년 현재

124개의 국제권고와 27개의 국제문서 및 3개의 계량용어 문서를 출간했다. 특히 1991년도부터 OIML인증서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제권고는 계량학적 및 기술적 요구조건,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양식 등 3가지의 형태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8개의 기술위원회(TC)에서 28개의 권고규격을 개정작업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8개 TC에서 정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TC/SC에서 개발/개정한 국제규격 채택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부족 등으로 TC/SC/WG에서의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향후에는 TC/SC/WG에 관련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